

경남농어촌공사, 호우 대비 안전관리 강화

농식품부 등 농업용 저수지 합동점검

기사입력 : 2026-06-18 09:13:16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집중호우·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관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.

경남본부는 5월부터 농식품부, 지자체 및 관할 지사와 함께 관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.

주요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, 비상대응체계와 주민대피계획의 수립·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.

저수지 안전점검과 함께 우기 전 원활한 배수 환경 조성에도 나서고 있다. 배수로 준설과 양수펌프 임대 예산을 확보해 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배수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,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. 아울러 배수장 야간 조명시설을 확충해 야간 근무자의 시인성과 작업 안전성을 높이고,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이하은 기자 eundori@knnews.co.kr

<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, 무단전재·크롤링·복사·재배포를 금합니다. >

이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

